

니트웨어에 나타난 그런지룩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 '90년대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

김 경 인
한성대학교 의상디자인 전공 부교수

A Study on the Expressive Technique of Grunge Look in the Knitwear Fashion of the Last Decade

Kyung-In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
(2003. 10. 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ressive technique of grunge look in knitwear fashion. For this study, I have investigated theories of retro and deconstructionism trends, and have examined pictures from professional fashion magazines. The results of study on the expressive technique of grunge look reflected on the knitwear fashion were as follows: (1) patchwork technique, which is an outstanding method of recycling, (2) handknitting technique, which came from retro trend of hippism, (3) unfinished edge, which emphasized the image of poverty and incompleteness, (4) irregular lace knitting and slash technique, which is the typical details of grunge look and denies the traditional fashion order, (5) hand stitch technique using various materials, which gives second-hand mood of hippie look, and (6) fringe details, which originated from the unfinished edge technique.

Key Words: knitwear (니트웨어), grunge look (그런지 룩), expressive technique (표현기법), recycling (재활용), retro trends (복고풍)

I. 서론

90년대 이후 니트웨어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부상하여 니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타인보다는 본인 위주의 편안함과 개성을 존중하는 캐주얼 마인드가 확

산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캐주얼 웨어와 스포츠 웨어의 수요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세계적 패션 트렌드의 하나인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외관이 인위적이지 않으며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니트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한성대학교 아트앤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 특별연구비에 의한 것임.

따라서 지금까지 우븐과의 코디네이션이나 구색개념으로 취급되어 왔던 니트웨어가 이제는 독립적인 품목으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¹⁾.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의 대두로 자연을 보호하는 개념의 에콜로지에 초점이 맞춰 지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재생, 재활용의 개념인 리사이클로까지 전개되어 왔다. 이것은 옛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린지룩이 이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자연주의를 모티브로 하는 에콜로지의 영향을 받은 그린지룩에서 니트웨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패션 트렌드의 하나인 그린지룩의 특성과 그 형성배경에 대해 알아 보고, 니트웨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기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그린지룩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소비자층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국내의 단행본과 학위논문들을 참고하였으며, 사진자료 분석을 위해서 최근 10년간 발간된 국내외 패션 관련 잡지와 internet site를 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II. 그린지룩의 형성배경

1 레트로(Retro) 경향

최근 10년간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계층간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대증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영역에서도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고전적인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

되어 각 영역의 독자성을 수호하기 보다는 상호 교류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²⁾. 젊은 세대들은 기존 기성세대들의 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성실보다는 합리와 효용을 추구하였으며 현대 기계문명에 대한 방패로 자연처럼 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패션에서도 레트로 룩(Retro Look)이 유행하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공존하고 서로 조합된 형태를 보여 주었다³⁾.

영어에서 접두어 'Re-'(다시 한다는 의미)라는 개념이 최근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과 복고의 경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레트로 스타일은 과거와 자연에 대한 향수와 소박하고 단순했던 지난 시절의 생활방식에 대한 동경을 지향한다. 즉 과거에 유행되었고 지금은 유행이 지나가 버린 듯한 스타일을 다시 유행되도록 제시하는 레트로 테마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에콜로지 경향에 적절한 표현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⁴⁾. 패션에서도 레트로 룩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공존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린지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네오히피 룩(Neo-Hippie Look) 과 네오펑크 룩(Neo-Punk Look)이라고 할 수 있다.

네오히피 룩은 1990년대 환경보호운동의 확산과 함께 미국의 신세대들이 추구하는 "풍요로움으로부터의 도피"로부터 등장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의 히피문화 즉 히피즘(Hippism)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기성세대의 생활양식과 정치, 사회경제적 구조전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또한 이들은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고 현실과 이면의 모순에 심한 갈등을 가지고 신비로운 종교세계와 이상주의를 구축하려 하였다⁵⁾. 히피문화의 대표적인 장르는 록 음악으로 히피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히피정신의 중심이 되었다. 록 음악은 관습에 대

1) 한성지, 김문숙 (2002).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도록, p.46.

2)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9). 「복식문화」, 교문사, p.241.

3) 이효진, 류근영 (2000).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6), p.811.

4) 전소영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1.

5) 이효진, 류근영. 전개서, p.808.

한 저항의 표현으로 받아 들여짐으로써 반항적인 십대들의 맹목적인 추종과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십대의 우상으로써 전파매체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전달됨으로써 새로운 반문화의 가장 설득력있는 매체이기도 했다⁶⁾.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거부와 소비자 위주의 자본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문화인 히피문화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난(Poverty)’이다. 이러한 히피문화의 특성으로 낡고 오래된 중고의류(secondhand style)를 착용함으로써 산업사회 물질문명에 대한 반작용을 표현하였다. 또한 인공적인 것, 세련된 것에 대항하여 자연적인 것, 수공업적인 것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자신이나 장인이 만든(hand made)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⁷⁾.

이들은 오래 입은 옷에서 느낄 수 있는 낡은 듯한 분위기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바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전에는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의복들을 함께 입음으로써 독특한 레이어드룩의 경향이 생겨났다⁸⁾.

경기불황으로 인한 침체적인 분위기속에서 정신적 빈곤감을 느끼게 된 1990년대 이후의 사회상은 1960년대 말 히피문화가 대두될 당시의 사회상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산업사회의 물질우선주의, 자연 파괴 등에 회의를 느낀 현대인들의 심리는 자연스럽게 옛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복고풍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 결과 60년대의 히피풍이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형되어 네오 히피 패션이라는 테마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네오 히피룩은 이전의 히피룩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1960년대 히피가 정치적 색채를 띤 사회운동적인 면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네오 히피룩은 사회적 이슈보다는 하나의 취향(Taste) 또는 스타일(Style)로 봐야 할 것이다. 즉 네오 히피룩은 반항적이라기 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소재와 디자인이 고급화되어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니트 소재도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레이어드 룩(Layered Look), 민속풍, 패치워크(Patchwork) 등의 복합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지룩의 형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⁹⁾.

1990년대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복고 무드가 음악에도 영향을 주어 1970년대의 록 음악(Rock music)이 다시 유행하여 붐을 일으키고, 경기 침체에 의한 불황, 정치적 불신 등의 사회적 배경이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은 1970년대 펑크 문화가 만들어지고 변성하던 당시의 사회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상 아래에서 ‘네오 펑크(Neo-Punk)’라는 파격적인 청소년 문화가 탄생된 것이다. 특히 1970년대 펑크 문화를 시작하고 트렌드를 만들었던 Malcolm McLaren이 1990년대에 들어 와서 다시 “Paris”라는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여 음악활동을 재개하였는데¹⁰⁾, 이러한 사실이 1990년대에 다시 네오 펑크문화가 부상하게 된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펑크는 당시 실업의 증가와 그들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에 대한 반발로부터 생겨났다. 이들은 괴상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또는 누더기 복장과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 혐오스러운 행동을 통하여 기존사회에 대한 저항감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기존의 디자인 원리에서 주장하는 균형, 조화, 질서, 비례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질서한 스타일로 일반인들을 놀라게 하였다¹¹⁾.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기존의 미의식에 충격을 줌으로

6) 한미경, 은영자 (2001). 1990년대의 히피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2), p.191.

7) 문진 (1990).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8) 서유리 (1995).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2), p.285.

9) 김경인, 이윤정 (1994). 히피, 펑크와 네오히피, 네오펑크의 비교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8, p.267.

10) MODA IN. No.90, p.148.

11) 이정후 (1990). 현대패션에 나타난 안티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5.

써 허무감과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핑크의 복식이 패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아방가르드한 스트리트 패션의 출현에 아이디어의 근원으로서의 역할, 기존 패션 규칙의 파괴 등으로 기능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의지의 표현으로서 패션이나 예술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다¹²⁾.

네오 핑크룩에는 1970년대의 핑크 룩의 특징이 많이 남아 있다. 즉 중고의류, 징박한 칼라의 검정가죽 자켓, 일부러 구멍을 내거나 slash를 준 바지와 셔츠 또는 니트 스웨터, 안전핀, 지퍼, 체인 등의 금속장식, 머리를 아예 밀어 버리거나 모히칸족 머리처럼 가운데 부분만 세워서 염색한 헤어 스타일, 평상시 즐겨 사용되지 않는 색감의 특이한 메이크업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래의 핑크에 비교하여 네오 핑크 스타일은 타이트한 티셔츠를 비롯한 스포츠 아이템과 유니섹스의 측면이 강하며, 핑크의 정신보다는 단순히 패션 스타일을 즐기는 것이었다¹³⁾. 또한 네오 핑크룩은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를 창조하여 매력적으로 보이고 흥미거리를 과시하려는 점이 1970년대 핑크 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거침없이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대담성과 함께 멋에 충실했다는 인상을 전해 준다¹⁴⁾.

이와 같은 네오 핑크룩에서도 네오 히피룩과 마찬가지로 니트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린지룩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2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경향

20세기를 이끌어 왔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이 나타나면서 문화, 예술의 각 분야에서의 기성 가치가 무너지고 절대적

인 믿음과 진리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일어나면서 모든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가치를 해체(deconstruction)시키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어, 해체주의라는 새로운 영역이 대두되었다.

해체주의는 서양철학의 뿌리깊은 전통인 이분법적인 이론에 대항하여 차연(Differances), 의미의 불확정성(Intermeaning of meanings),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탈현상(Breakaway from phenomenon)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철학이론으로,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더 나아가 그 관계 자체를 해체시키는 즉, 달친 세계를 거부하고 열린 세계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해체주의의 기본이론은 현대의 포스트모던한 상황과 후기 산업사회의 다원화 경향을 배경으로 인문과학, 사회, 예술분야 등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¹⁵⁾.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자크 라캉(Jacque Lacan),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 미셸 푸코(M. Foucault) 등이 있으며, 해체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동의어로 인식된다¹⁶⁾.

즉 해체론은 구조주의(Structuralism)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포스트 구조주의 이론으로, 데리다(Derrida)는 절대적인 기초나 제일 원리에 의존하는 모든 사고 체계를 형이상학적이라고 하고 체계와 통일성의 원리를 해체하고자 시도하였다¹⁷⁾. 데리다의 해체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texte)들에 대한 해체로,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엮고 기존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 '차이', '역사성'을 인정하여 그 동안의 고정된 서구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¹⁸⁾.

미술, 건축,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술계 전반

12) 김혜정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키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13) 임은혁 (2002).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3.

14) 김경인, 이윤정. 전계서, p.270.

15) 최영옥 (2001). 장 폴 콜타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 경향. 복식문화연구 9(4), p.575.

16) 정홍숙 (1995). Post-Modernism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25, p.73.

17) 정은주 (1995). 현대복식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18) 김지연 (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복식 32, p.295.

에 걸쳐 영향을 미친 해체주의는 패션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해체주의 패션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1980년대부터 일어난 안티패션(anti fashion) 운동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부정함에 따라 이전의 경직되고 구조적이며 유니폼적인 패션의 형태나 입는 방식까지도 부정하고, 소위 파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의 다양한 미의식이 새로운 패션의 태동을 자극하고, 디자이너는 그들의 행동에 자극되어 안티패션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¹⁹⁾.

패션에서 처음으로 '해체주의' 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의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서였다. 특히 패션계에 본격적인 해체주의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989년 10월 파리에서 선보인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의 쇼에서였다.

마지엘라는 이전과는 다른 기이한 아이디어로 의복의 구성적 요소들을 분해하고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관념에 대한 반발을 시도하였다²⁰⁾.

해체주의패션의 원류는 콤데가르송(Comme des Garçons)사의 레이 카와구보(Rei Kawakubo)로, 그녀의 구멍난 검정 레이스 스웨터는 대표적인 해체주의패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의 패션에 대한 접근방법은 "무에서 출발(to start from zero)"인데, 이는 해체주의패션 철학의 바탕이다²¹⁾.

리차드 마틴(Richard Martin)과 헤럴드 코다(Herold Koda)에 의하면,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낙관적 과시적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생활의 긴축을 유도했으며 이

러한 긴축된 경제상황 속에서 해체된 역설적인 스타일이 나타났다²³⁾.

이러한 해체주의 양상은 복식에서 소외되었던 제3세계의 양식들을 복식에 수용시킴으로써 기존 서구중심의 복장 체계에 새로운 사고를 가져다 주었고, 전통적인 의복의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봉제하지 않는 의복, 또는 소재에 대한 손상에 의해 빈곤과 파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푸어 룩(poor look) 등 서구중심주의에 일격을 가하는 복식을 제시하였다²⁴⁾. 즉 해체패션으로 전통이라는 규범적 과거를 부정하고 관습적인 규칙을 거부하는 전위적 시도들이 행해졌으며, 복식의 모든 구성요소가 해체되어 얽혀 있고 서로 치환과 차용으로 재구성되었다²⁵⁾.

해체주의패션 디자인은 종종 현실세계에 기초해 착용자를 위압하지 않는 옷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장보다는 케주얼룩이 선호되고 또한 소재 면에서 가볍고 부드러운 직물과 니트류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런지 패션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III. 그린지룩의 특성과 니트와의 연관성

1990년대 후반기 이후 경제적인 수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컴퓨터,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사회구조는 복잡화, 다양화, 개인화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19) 공경희 (1987). 20세기 미술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7.

20) Spindler, Amy M. (1993). "Coming Apart", The New York Times, July 25, pp.8-9.

21) 김성복 (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18, p.495.

22) Sudjio, Deyan (1990). Rei Kawakubo and Comme des Garçons. New York: Rizzoli, p.10.

23) Martin, R. and H. Koda, 이선재 역 (1996). 「인프라 의상」. 경춘사, p.94.

24) 유은정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표현양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25) 이민경, 한명숙 (2002). 현대 테넵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 복식문화연구 10(4), p.465.

26) 정홍숙, 정삼호, 홍병숙 (1998). 「현대인과 의상」. 교문사, p.81.

양상인데,²⁶⁾ 그 중 하나가 그린지룩이다. '그런지(grunge)'라는 말은 'grungy'라는 속어에서 온 것으로, '쓰레기', '폐물'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는 미국 북서부 시애틀의 노동자 스타일로 미국 잡지인 Sassy에서 붙여준 이름이다²⁷⁾.

또한 그린지는 1993년 무렵 유행하던 히스테릭한 록(rock)뮤직을 가리키던 명칭이다. 즉 록 연주자들의 스타일과 음악 그리고 그들의 패션이 거지 모습과 같이 혐오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일컬어진 것이다. 그린지룩은 구속받지 않고 입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입는 가난뱅이 룩으로, 마치 오래 입은 것 같아 보이는 낡은 이미지를 연상시킨다²⁸⁾.

이러한 가난의 이미지는 보헤미안의 반항적 스타일로, 히피와 핑크의 중그 스타일(Second-hand style)과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표현방법과 큰 연관성을 가진다²⁹⁾.

그런지는 젊은 스트리트 패션의 하나로 1980년대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뿌리는 도시적인 보헤미아니즘에 있다³⁰⁾.

현실에 대해 냉소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이 낡은 그린지 문화는 1960년대 히피문화의 이념과 같으며, 이들의 옷차림은 대담한 레이어링과 의도적인 지저분함이 특징이다. 패션비평가인 Andre Leon Talley가 "그런지룩은 패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듯이 초기 반응은 부정적이었지만, 그린지 스타일은 결과적으로 패션의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³¹⁾.

이는 하류층 의복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하이패션에 깊숙히 침투한 90년대 전반의 가장 획기적인 패션으로 자리잡았다³²⁾.

20세기 후반부터 환경을 의식하는 태도, 행동과 제품은 서구의 저항문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본래 생태학의 뜻을 지닌 에콜로지(Ecology)는 오염되어 가는 지구환경을 원상으

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동시대인들의 공감대가 표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에콜로지 테마의 영향으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패션이 부각되었는데, 다양한 니트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니트웨어는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에콜로지 테마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콜로지 경향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유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전개되어 온 우리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써 물자의 재활용이 대두되었는데, 패션에서도 현옷같은 낡은 느낌의 그린지룩이 부상하였다. 특히 낡고 오래된 보이는 스웨터 니트나 여러 종류의 짜투리 실을 이용한 니트웨어 제작은 에콜로지의 적극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존의 니트웨어 소재를 풀어서 즉 재생하여 새로운 니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은 두말할 것 없는 환경보존이다. 이와 같이 니트웨어는 자연주의를 모티브로 하는 에콜로지의 영향을 받은 그린지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지룩에서 많이 사용되는 니트 아이템으로는 클래식 니트웨어에 비해 과장되게 큰(oversized) 스웨터와 손뜨개로 굵게 짠 벌키머플러와 쇼울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이들은 전형적인 착용방법을 무시하고 여러 종류의 옷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룩으로 연출되어 편안하고 자유로운 멋을 주는 경우가 많다.

IV. 니트웨어에 나타난 그린지룩 표현기법

그런지룩의 특성 중에서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가 강한데, 현대패션

27) 임은희, 전계서, p.50.

28) 정홍숙, 정삼호, 홍명숙, 전계서, p.111.

29) 노정심 (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0.

30) 이선재 (1998). 「의상학의 이해」, 학문사, p.177.

31) Buxbaum, Gerda (ed.)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Prestel, p.148.

32) 정경희 (1996).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배경과 유행현상,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8.

에 나타난 재활용 패션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³³⁾를 살펴보면, 주로 우븐 소재로 만들어 진 그런지룩의 표현기법이 다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니트 소재의 그런지룩으로 한정시켜 그 표현기법을 분석해 보았다.

1 패치워크(Patchwork) 기법

패치(patch)는 ‘이어 붙이기를 한다’는 뜻으로, 쓰다 남은 천이나 쓸 수 없는 천을 배색효과를 내면서 이어 붙이는 기법이다³⁴⁾.

이러한 패치워크는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지룩에서 사용되는 표현기법으로써, 우븐 소재뿐만 아니라 니트 소재로도 자주 사용된다.

클래식 니트웨어에 “급진적 변화”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Martin Margiela는 A/W 91/92 컬렉션에서 재활용(recycling)을 주제로 군용 스웨터와 양말을 부분적으로 패치워크하여 재활용 스웨터를 발표하였는데,³⁵⁾ 이것의 영향으로 낡은 스웨터의 형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형시켜 기존의 스웨터를 재활용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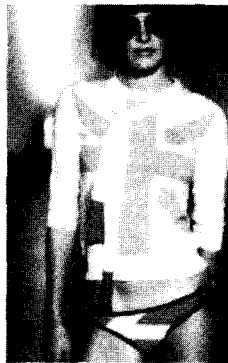
〈그림1〉 Xuly Bet (A/W 93/94)
Knitwear in Fashion p.113

〈그림1〉은 Xuly Bet의 ‘재활용’을 주제로 한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오래된 스웨터를 부분적으로 자르고 연결시켜 만든 니트 원피스인데, 연결부분을 오버록 처리하고 눈에 띄는 색상의 핸드 스티치로 장식효과를 줌으로써 패치워크 기법을 강조하였다.



〈그림2〉 Fake London (A/W 2001/2002)
Knitwear in Fashion p.113

영국 국기를 주제로 다양한 종류의 패치워크 또는 자카드 조직의 스웨터를 발표하였는데, 〈그림



〈그림3〉 Fake London (S/S 2002)
Made in Britain p.181

〈그림2〉는 런던에서 설립된 디자인 하우스인 Fake London의 A/W 2001/2002 컬렉션 작품으로, 캐시미어 소재의 원색 계통의 재활용 스웨터를 영국 국기의 주제로 조각조각 이어 붙여 제작된 것이다. Fake London은 2000년을 전후하여 수년간 런던 컬렉션에서 영국 국기를 주제로 다양한 종류의 패치워크 또는 자카드 조직의 스웨터를 발표하였는데, 〈그림3〉은 영국기 문양의 색상을 파스텔 계통으로 바꿔 자카드 조직으로 니팅한 캐시미어 스웨터와 니커이다.

니트웨어에서의 패치워크기법은 기존의 스웨터를 이용한 재활용 스웨터뿐만 아니라 니트와 이질적인 소재들을 함께 사용한 디자인에서도 최근 빈번하게 보여진다. 즉 니트와 우븐, 니트와 가죽, 니트와 모피 등 다양한 소재와의 혼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네오히피룩의 특성과 연관성을 가진다. 〈그림4〉는 여러 종류의 니트와 코듀로이를 패치워크한 작품이다.



〈그림4〉 Di EMI (A/W 2003/2004)
Mglia N.134 p.11

33) 권정원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op. cit., p.63.

35) Black, S. (2002). Knitwear in Fashion. London : T&H, p.98.

2 손뜨개(hand-knitting)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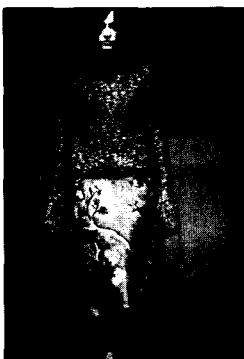
90년대 이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침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대 산업사회에 대한 반항의 표현으로써, 인공적인 것, 세련된 것 등에 대항하여 자연적인 것, 수공예적인 것 등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복식에 있어서도 대량생산으로 상업화된 모드보다는 자신이나 장인이 손수 만든(hand-made)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러한 히피 풍의 핸드메이드 경향은 니트웨어에도 반영되어 다양한 종류의 손뜨개로 만든 의상이 유명



〈그림5〉 Alexander McQueen (A/W 2000) Moda In N.112 p.79

컬렉션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5〉은 Alexander McQueen의 A/W 1999/2000 'The Overlook'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매우 굵은 실을 사용하여 굵게 핸드니팅한 빅 터틀넥 스웨터인데, 목부분의 과장된 디테일과 굵은 스티치 때문에 인체비례가 다르게 보인다.

〈그림6〉도 과장된 소매길이의 울이 굵은 스웨터인데, 안쪽인 purl stitch를 겉쪽으로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한편 〈그림7〉은 굵기가 가는 실을 사용하여 느슨하게 핸드니



〈그림6〉 Junko Shimada (A/W 2000/2001) Moda In N.113 p.131



〈그림7〉 Gazebo Ipse (S/S 2003/2004) Maglieria N.134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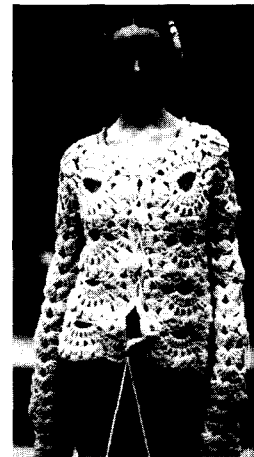
팅하여 그물처럼 생긴 고리구조를 가지는 작품인데, 이는 '기존 패션규칙의 파괴를 통한 새로운 패션 창조'를 의미하는 아방가르드의 대담성과 펑크의 영향을 받은 그랜지룩이라고 생각된다.

〈그림8〉은 Anna Sui의 작품으로, 색상, 굵기, 질감이 다른 두 종류의 실을 비대칭적으로 함께 사용하여 성글게 손뜨개한 스웨터이다. 이와 같이 스티치가 균일하지 않은, 즉 고르지 못한 니팅이 결과적으로 안티패션의 분위기를 초래한다.

〈그림9〉은 코바늘 뜨기(Crochet)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는 과거에 대한 향수 즉 복고 무드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림8〉 Anna Sui (S/S 1994) Knitwear in Fashion p.112



〈그림9〉 Zucca (A/W 2001) Moda In N.113 p.34

3 unfinished edge(끝단처리하지 않은 가장자리)

환경 문제의 부각으로 자원 재활용이 새로운 패션의 표현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디자이너들이 인위적으로 밑단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울이 풀리게 디자인함으로써 낡고 오래된 느낌 즉 빈곤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는 또한 미완성의 상태를 새로운 미의 가치로 받아 들이는 해체주의 패션의 영향으로,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 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림10〉는 마틴 마지엘라의 전위적인 작품으

로, 겹으로 드러난 솔기의 시접과 단처리를 하지 않은 헴라인을 통해 미완성의미를 추구하였다³⁶⁾. <그림11>은 Comme des Garçons의 남성복 컬렉션에서 선보인 스웨터인데, 몸판과 소매 끝부분을 윗부분보다 성글게 짜고 끝단의 올이 풀리게 하였다.

횡편기로 니팅된 니트 소재는 대부분의 경우 끝부분이 말리는데, <그림12>은 앞트임 가장자리가 말리고 진동선 솔기가 겹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그림11> C. Garçons (A/W 1994/1995) Uomo N. p.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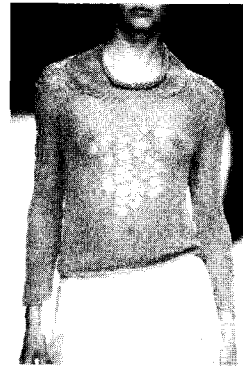
<그림10> M. Margiela (Baudot, p.341) Fashion the 20th Century



<그림12> Y. Yamamoto (A/W 2001/2002) Knitwear in Fashion p.101

4 random lace knitting과 cut-up 디테일

납고 헤진 느낌을 주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구멍을 내거나 슬래쉬를 넣는 방법은 재활용 패션의 전형적인 디테일인데, 우븐 뿐만 아니라 니트 소재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들은 기존의 패션 질서 내지는 규칙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해체주의 패션의 영향을 받은 그런지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Rei Kawakubo의 불규칙하게 구멍뚫린 스웨터는 파괴의 효과를 내지만 실제로 니팅과정에 있어서 각 구멍은 올이 풀리지 않게 아래, 위 끝막을 처리하여 안정성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³⁷⁾.



<그림13> Jans & Carlos (S/S 2001) Moda In N.110 p.141

<그림13>은 스웨터 앞가슴과 양쪽 소매에 불규칙한 레이스 니팅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최근 개봉되었던 영화 '매트릭스-완결편'에서 주인공들이 현실세계에서 입고 나온 의상도 이와 동일한 디테일의 스웨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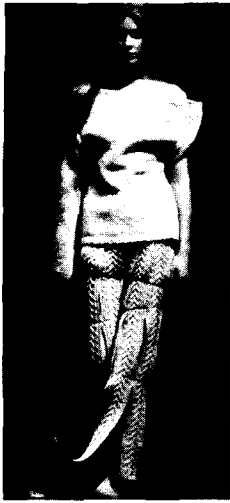


<그림14> Adam Jones (A/W 2001/2002) Knitwear in Fashion p.33

<그림14>는 Adam Jones의 A/W 2001/02 컬렉션 작품인데, 혁신적으로 리브조직의 니트 소재와 쉬폰을 함께 사용하였다. 리브니트의 길이방향으로 불규칙적인 슬래쉬를 군데군데 넣고 그 안쪽에 쉬폰을 덧대었는데, 이러한 슬래쉬는 핑크의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36) Baudot, F. (1999).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Universe, p.341.

37) Black, S. op. cit., p.92.



〈그림15〉 A. Tayama
(A/W 2001)
Moda In N.113 p.97

〈그림15〉은 그런지룩의 전형인 비대칭 스웨터와 조각조각 짜서 이어 붙인 스커트의 조합인데, 스커트 둘레를 불규칙하게 고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슬래쉬 효과를 주었다.

5 핸드 스티치

재활용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자인에서 수공예적 즉 핸드메이드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개성적인

연출과 재활용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도록 도와 준다. 다양한 수공예적 기법중의 하나인 핸드 스티치는 상대적으로 바늘땀이 일정하게 그려지 못하므로 중고의 분위기를 내게 하여 재활용 이미지의 그런지룩에서 자주 사용된다.

〈그림16〉에서는 자카드 무늬의 가장자리에 흰색실로 핸드스티치 처리하여 아플리케의 느낌이 나게 하였다. 〈그림17〉은 Adam Jones 가 디자인한 Dior 컬렉션 작품인데, 모헤어 스웨터 위

에 쉬폰 조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핸드 스티치 처리하여 평면적인 스웨터에 입체감을 준다. 이와 같이 니트 원단위에 여러 가지 실이나 다른 소재들을 손으로 박아 넣을 수 있다.

6 프린지 장식

낡고 오래된 느낌과 미완성의 느낌을 함께 주는 울풀림을 장식으로 이용하여 미적 감각을 표현한 것이 슬장식 즉 프린지이다. 프린지 장식은 아메리카 인디안의 민속복식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히피 스타일의 대표적인 디테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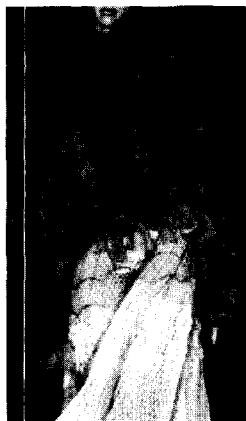


〈그림18〉 KAOS (A/W 2003)
Maglieria N.133 p.14

〈그림18〉은 울이 굵은 손뜨개 니팅으로 제작한 니트 코트로, 밑단과 앞여밈에 울을 푼 것처럼 보이는 프린지 장식이 되어 있다. 〈그림19〉는 어깨선의 앞 뒤 양쪽으로 매우 긴 술을 늘어 뜨린 슬리브레스 스웨터인데, 이것은 히피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그런지룩의 표현기법으로 보인다.



〈그림16〉 Bylos (S/S 1994)
Uomo N.13 p.84



〈그림17〉 Dior (A/W 2000/2001)
Knitwear in Fashion p.32



〈그림 19〉 The Bruce Brand (A/W 2001)
Moda In N.113 p.61

38) 한미경, 은영자. 전계서, p.192.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패션 트렌드의 하나인 그린지룩의 특성과 그 형성배경인 레트로 경향과 해체주의 경향의 이론에 의거하여, 니트웨어에 표현된 그린지룩의 표현기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자원 재활용의 적극적 실천방법인 패치워크 기법으로 여러 종류의 원단을 이어 붙이는 기법인데, 재활용 스웨터, 니트와 다른 소재와의 패치워크 등이 있다. 둘째, 손뜨개 기법은 수공예적인 것을 선호하는 히피 스타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니팅되는 실의 굵기에 따라 아방 가르드한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복고풍의 코바늘 뜨기 기법도 자주 사용된다. 셋째, 단처리지 않는 가장자리로 올이 풀리거나 끝부분이 말리게 하고 또는 솔기가 겹으로 드러나게 하여 낡고 오래된 느낌을 줌과 동시에 미완성의 미를 부각시켰다. 넷째, 불규칙한 레이스 니팅과 슬래쉬를 넣는 기법은 그린지룩의 전형적인 디테일로, 기존의 패션규칙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의 기준을 따르는 펑크와 해체주의 영향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다섯째, 핸드 스티치는 수공예적 기법의 하나로 바늘 땀이 고르지 못하므로 중고의 분위기를 내게 하여 재활용 패션에서 자주 사용된다. 다양한 종류의 실뿐만 아니라 쉬폰, 가죽, 리본 등의 다른 소재들을 니트 원단위에 핸드 스티치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프린트 즉 술 장식은 낡고 오래된 느낌의 올풀림을 이용하여 장식적으로 표현한 디테일이다. 이것은 히피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그린지룩의 표현기법이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그린지룩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니트웨어 소비자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공경희 (1987). 20세기 미술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정원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인, 이윤정 (1994). 히피, 펑크와 네오히피, 네오펑크의 비교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8.

김성복 (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18.

김지연 (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복식 32.

김혜정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키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정심 (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진 (1990).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유리 (1995).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2).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9). 「복식문화」. 교문사.

유은정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표현양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경, 한명숙 (2002).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 복식문화연구 10(4).

이선재 (1998). 「의상학의 이해」. 학문사.

이정후 (1990). 현대패션에 나타난 안티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진, 류근영 (2000).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6).

임은혁 (2002).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소영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

- 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정경희 (1996).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배경과 유행현상.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1995). 현대복식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1995). Post-Modernism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25.
- 정홍숙, 정삼호, 홍병숙 (1998). 「현대인과 의상」. 교문사.
- 최영옥 (2001).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 경향. 복식문화연구 9(4).
- 한미경, 은영자 (2001). 1990년대의 히피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2).
- 한성지, 김문숙 (2002).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도록.
- Baudot, F. (1999).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Universe.
- Black, S. (2002). Knitwear in Fashion. London: T&H.
- Buxbaum, Gerda (ed.)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Prestel.
- Martin, R. and H. Koda. 이선재 역 (1996). 「인프라 의상」. 경춘사.
- McDermott, C. (2002). Made in Britain. London: Mitchell Beazley.
- Spindler, Amy M. (1993). "Coming Apart," The New York Times. July 25.
- Sudjio, Deyan (1990). Rei Kawakubo and Comme des Garcons. New York: Rizzoli.
- Maglieria Italiana No. 113, 114.
- MODA IN. No.90, 110, 111, 112, 113.
- UOMO Collezioni No. 13, 14.